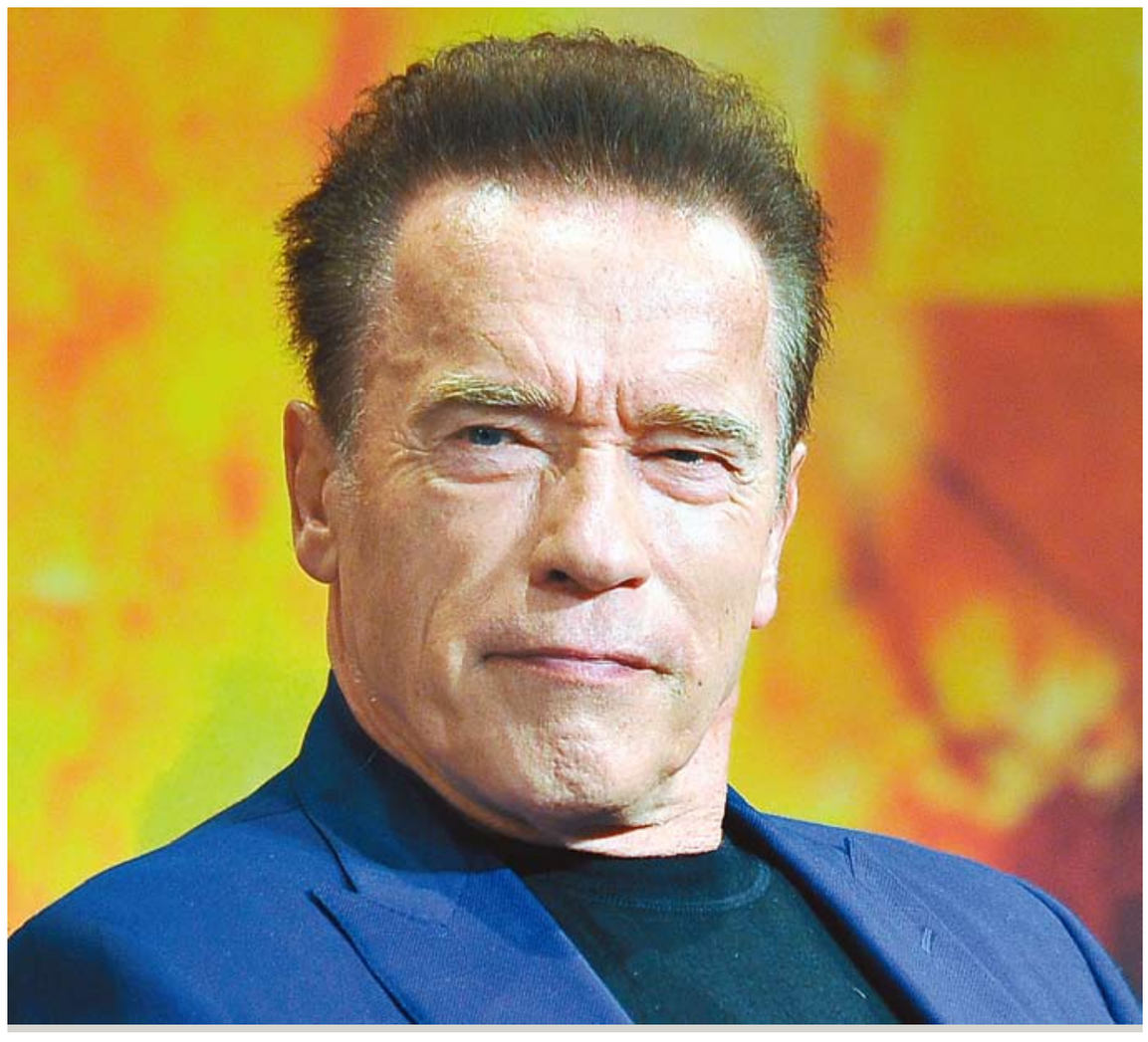
"I will be back" 한국 온 72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지난 30일 개봉
28년 만에 뭉친 '터미네이터' 원년 멤버
제임스 카메론, 아놀드 슈워제네거, 린다 해밀턴



한국 온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의 내한 기자간담회 가 21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사진=이기룡 기자

"I will be back."

저예산(650만 달러) 영화 '터미네이터 1(The Terminator, 1984)'에서 "I'll be back"이란 인상 깊은 대사와 특수 효과로 포장된 '폭력의 미학'을 제대로 선보이며 'SF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터미네이터는 7년 뒤 '터미네이터 2 : 심판의 날(Terminator 2 : Judgment Day, 1991)'이란 제목으로 돌아왔다.

'인류 말살'을 목표로 설계돼 미래에서 투입된 터미네이터 'T-800'은 1편에서 여주인공 '사라 코너'를 죽이기 위해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살인 기계로 묘사됐으나, 2편에선 거꾸로 사라 코너와 동지가 돼 미래 인류의 지도자가 될 '존 코너'를 보호하는 보디가드로 변신했다.

터미네이터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는 "I'll be back"이란 대사는 2탄에서도 나오는데, 많은 이들의 '기억'과는 달리 'T-800'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에선 나오지 않는다. 정작 터미네이터는 "Good Bye"라는 평범한 인사말과 함께 '엄지 척'을 하고 사라졌는데, 방송에서 "I'll be back"이란 대사가 워낙 많이 회자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터미네이터가 "I'll be back"을 외치고 장렬히 전사했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정설처럼 굳어졌다.

어쨌든 "I'll be back"이란 말을 남기고 사망한 터미네이터는 12년 만에 또다시 돌아왔다. '기계들의 반란(Rise of the Machines, 2003)'이란 멋있는 부제와 함께 돌아왔건만 '터미네이터 3'는 전작의 명성에 흠집을 낸 '졸작'이 되고 말았다. 이미 2편에서 모든 내용이 완결된 영화를 무리하게 연장하려다보니 스토리가 꼬인 탓이었다.

'T-800'이 스스로 용광로에 들어가면서까지 막았던 '심판의 날'이 "그냥 미뤄졌다"는 무책임한 설정으로 바뀌어 터미네이터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고, 여전사 사라 코너를 병으로 죽게 만들어 골수팬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1~2편을 제작했던 제임스 카메론이 완전히 손을 뗀 게 패인이었다. 다만 '터미네이터 3'은 영화팬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지만 전세계 영화 시장에서 제작비의 2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제작자에게 후속편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6년 만에 돌아온 '터미네이터 4 : 미래전쟁의 시작(Terminator Salvation, 2009)'은 3편보다도 적은 흥행 수익을 올려 제작사를 파산시키는 '불효자'가 됐다. 전작과는 달리 아놀드 슈워제네거(72)가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등 시리즈의 정통성을 따르지 않는 시도로 관객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은 탓이었다.

이로부터 6년 후 또 다시 돌아온 터미네이터는 '프리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망작'으로 평가 받는 3~4편의 뒤를 잇는 대신, 1편 이전의 상황을 그려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낸다는 전략이었다. 게다가 전작의 교훈을 바탕으로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복귀시키는 등 골수팬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터미네이터 제니시스(Terminator GENISYS, 2015)'는 개봉 이후 평단과 관객 모두로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재미도 없고 완성도도 떨어진다는 비난 속에 흥행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중국에서 '초대박'을 터트리는 바람에 기사회생했다.

그렇다면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Terminator : Dark Fate, 2019)는 어떨까? 이 영화는 3~5편의 뒤를 잇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퀄'을 다루지도 않는다.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는 골수팬들로부터 유일하게 인정 받고 있는 '터미네이터 2'의 뒤를 잇고 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귀결된 3·4·5편을 과감히 내치고, '심판의 날' 이후, 새로운 운명이 격돌한다는 주제로 '새 판'을 짠 것.

2편이 끝난 시점부터 내용을 리부트한 '다크 페이트'는 모든 면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 28년 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고 'T-800' 역의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사라 코너 역의 린다 해밀턴(63)이 돌아왔다. 기계와 인간들이 벌이는 추격전을 그린 시리즈 특유의 로드무비 형식도 부활시켰다. 예고편에 등장한 빌런 'Rev-9'이 너무 유약해 보인다는 평이 있지만, '노익장'을 과시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의 '포스'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21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시리즈에 참여하게 된 자체만으로 큰 행운"이라며 "제임스 카메론, 린다 해밀턴과 다시 합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팀 밀러 감독을 비롯한 훌륭한 분들과 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처음에 린다가 합류한다는 얘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다"며 "전작에서 린다는 강인한 여성상을 훌륭히 연기해 영화의 수준과 기준점을 높였는데, 이번에도 트레이닝으로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고 와, 그녀가 제대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액션 배우'로 복귀한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단단하고 힘이 있다고 여긴다"면서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늙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나는 여전히 힘이 넘치고 쓸모가 있다"고 자부했다.

린다 해밀턴은 "영화 크랭크인 훨씬 전부터 사라 코너가 되기 위해 트레이닝을 했다"면서 "그녀에 몰입한 상태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만나자 다시 컴백했다는 사실이 100% 실감됐고, 굉장히 재미있고 기쁘게 촬영에 임했다"는 복귀 소감을 밝혔다. 시리즈의 열성 팬이기도 했던 팀 밀러 감독은 "상상했던 대로 완벽히 구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캐릭터에 빙의된 린다 해밀턴과 맥켄지 데이비스를 보게 됐고 단번에 적임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심판의 날' 이후, 미래에서 온 '슈퍼솔져' 그레이스와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터미네이터 'Rev-9'이 벌이는 대격돌을 그린 '터미네이터 : 다크 페이트'는 오는 30일 개봉된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시즌제 예술감독 도입, 권한 나누겠다"

국립오페라단 박형식

"2020년은 국립오페라단 재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국립오페라단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오페라의 위상 정립,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형식(66) 국립오페라단 신임 예술감독은 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연습동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균형과 조화 △공정과 연대 △확대와 비상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의 운영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한 박 예술감독의 임기는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조직 장악력, 업무 추진력 및 대외 교류(네트워크)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감독은 "우수한 실력으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제작진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줘 그들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내 오페라계와 모든 음악계를 아우르는 맏형 역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즌마다 능력있는 예술감독을 선임해 작품 제작을 맡기겠다. 연출가와 지휘자, 성악가 등 제작진을 캐스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전임 감독이 구성해 놓은 작품으로 공연하고, 내후년부터 레퍼토리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립오페라단은 2011년 8월 취임한 제9대 김의준 전 예술감독을 비롯해 한예진·김학민·윤호근 등 4명의 전임 감독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현재 윤호근 전 예술감독 해임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감독은 "국립오페라단의 신뢰와 결속의 회복을 위한 위한 연대 시스템 기구와 공간을 모색하겠다. 민간 오페라단, 공연장, 유관 단체, 관련 대학 등 오페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적 연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감독은 한양대 음대 성악과와 단국대 대학원 음악과를 졸업해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췄다. 2000부터 2004년까지 정동극장장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하며 문화행정가로서 자질을 검증받았다.

그는 "기회의 균등과 투명성을 위한 오디션 제도, 작품 선정과 평가, 출연료의 현실화, 표준 계약서 등의 공정한 제작 시스템 모형을 구축해 공정과 연대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레퍼토리 제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형식 국립오페라단 신임 예술감독. 사진=국립오페라단

신성아 기자 mistery37@hanmail.net

뮤지컬 '물랑루즈' 미리 즐긴다

오리지널 OST 앨범 발매

뮤지컬 '물랑루즈'의 명곡들을 미리 즐길 수 있게 된다. CJ ENM의 글로벌 프로듀싱 뮤지컬 '물랑루즈'의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 OST가 오는 25일 국내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알 허슈펠드 극장에서 공식 개막한 '물랑루즈'는 1890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럽 물랑루즈의 가수와 젊은 시인의 사랑을 그린다.

이번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영화 '물랑루즈'의 감독인 바즈 루어만이 직접 프로듀싱을 담당했다. 뮤지컬에서 '새틴' 역을 맡은 카렌 올리보와 '크리스티앙' 역의 아론 트베잇 등 실제 브로드웨이 캐스트들이 녹음에 참여했다.

'유어 송(Your Song', '컴 왓 메이(Come What May)', '레이디 마말레이드(Lady Marmalade)' 등 명곡을 바탕으로 한 흥행 넘버들이 배우들의 생생한 라이브로 담겨 있다. 엘튼 존, 시아(SIA), 비욘세, 레이디 가가, 아델, 리아나까지 아우르는 대중음악 히트 넘버들를 재해석한 뮤지컬 넘버도 수록됐다.

'킹키부츠'와 '보디가드'에 이어 CJ ENM이 글로벌 프로듀서로 참여한 뮤지컬 '물랑루즈'는 '라이온킹'을 제치고 '해밀튼'에 이어 한달 넘게 주간매출 2위 등극, 현재까지 TOP5 자리를 지키고 있다. CJ ENM은 작품 개발 초기 공동제작자 지위를 확보하고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2억)를 투자했다. 이를 통해 CJ ENM은 한국 단독 공연권을 선점했으며 미국, 영국 런던, 호주, 캐나다 등 1급 프로덕션 공연의 공동제작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신성아 기자 mistery37@hanmail.net

신간 서적

딥러닝 레볼루션

지음 테런스 세즈노스키
펴냄 한국경제신문
472쪽 25000원

인공지능은 무인 자동차의 자율 주행, 의료 진단, 법률 상담, 자동 금융거래 등에 활용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수많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응용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졌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딥러닝이다. 인공지능 분야 최고 학회인 NeurIPS 의장인 저자는 이 책에서 "데이터를 가공해 정보로 만들어내는 정제소 역할을 하는 것이 딥러닝"이라며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도 딥러닝이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트렌드 2020

지음 연대성
펴냄 책들의정원
305쪽 16000원

저자는 감성 인공지능(AI), AI의 객체 인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유서비스, 드론 등 최신 상품, 트렌드와 함께 이것들이 가져올 개인 및 사회 차원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주목한다. 디지털 중독에 관한 위기감에서 스마트 기기로부터 나를 일정 시간 분리하는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자기 통제', 즉 나만의 '디지털 루틴'을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일과 후에도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해둘 것 등을 제안했다.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이장우 지음
울림 펴냄
224쪽 13000원

새롭고 흥미로운 인공지능 이야기를 모은 스토리북. 이제는 우리 일상 일부가 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그 너머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자질로 학습지능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한 '미래지능'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미래지능'에 인문학적 소양과 융합의 능력까지 갖춘 인재가 필요하며 저자는 이를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와 대비해 '오렌지 칼라'라고 부른다.

모바일 미래보고서

오가와 히토시 지음
처음북스 펴냄
208쪽 11000원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트렌드 예측서 '모바일 트렌드' 시리즈를 출간해 온 정보기술(IT) 전문포럼 커넥팅랩이 2020년 이후 트렌드를 예상했다. 커넥팅랩은 좀 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담고자 2020년도 판부터 책 이름을 '모바일 미래보고서'로 바꿨다. 저자는 초감각, 초고속, 초공유, 초연결, 초지능, 초경험 등 6가지 키워드로 2020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들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스마트폰, 5G네트워크, 게임 등 기존 산업뿐 아니라 히어러블, 공유경제2.0,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에 관한 전망도 함께 다뤘다.

AI를 이기는 철학

커넥팅랩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376쪽 16800원

일본의 '시민철학자'로 불리는 저자는 명문 교토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종합상사 직원, 프리랜서, 사법시험 준비생 등 다양한 길을 걷다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일상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 입문서를 써온 저자는 "철학만 제대로 배우고 나면 인공지능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의 '스피드 사고'에 대응하는 '슬로우 사고'를 제시한다.

빅디자인

김영세 지음
KMAC 펴냄
300쪽 16500원

저자는 1986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디자인 업체 이노디자인을 설립해 30년 이상 디자인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비즈니스를 통해 수많은 혁신을 이끌어 '디자인 업계의 구루'로 불린다.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와 기업의 형태까지 바꾸는 거대한 혁명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가 지금 사는 집, 사무실, 가구와 생활용품, 가전 및 전자기기, 자동차와 운송기기 등 모든 상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